

# 해묵은 공간 문제 해결 못하는 SPACE21, 소통까지 부재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지난 7월 13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룬 SPACE21 2단계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개됐다.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이 '2018 주요 건설 사업 보고'에 대한 대략적인 발표를 진행했고 SPACE21 2단계 사업에 대한 평의원 간 논의가 있었다. SPACE21 2단계 사업은 서울캠퍼스(서울캠) 글로벌광장 및 글로벌타워 신축, 국제캠퍼스(국제캠) 미래과학관 신축, 양 캠퍼스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미래과학관 설립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 계획 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이후 관련 행정 처리를 거치고 나면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글로벌광장 및 글로벌타워는 경희사이버대학의 늘어난 공간 수요 확보, 구성원 안전 확보 및 주차 편의 증대, 정원의 과정 공간 부족해소를 목적으로 계획 중이다. 서울캠 구 노천극장 자리에 위치하며, 총 약 380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 경영대학원, 글로벌미래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미래과학관은 연구공간 부족 해소,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의 핵심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캠 구 야구장 부지에 위치하며, 총 약 231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 미래과학클러스터, 지역거점연구센터, 미래환경연구소, 천체투영관 등 시설이 마련될 계획이다.

## 7월 공개된 SPACE21 2단계 사업 문제점 지적 이어져

그러나 해당 대학평의원회에서 공개된 계획만 두고 보면 SPACE21 2단계 사업은 '기존 공간문제에 대한 해결책 결여', '노후시설의 실질적인 수리 미비 및 방치', '구성원들과의 소통 부족' 등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SPACE21 2단계 사업 내용이 공개되자 회의 구성원들은 이를 지적했다.

먼저 그간 양 캠퍼스 학생들이 제기해 온 공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하다. 국제캠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분리됐지만 여전히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과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공학과 증원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다전공 허용인원 2~3배로 확대에 의해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의 강의 공간 부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좌측 붉은 원통형 건물이 글로벌타워이고 그 앞이 글로벌광장이다. 서울캠 구 노천극장 위에 건축될 예정이다. (사진은 1단계 사업 당시 조감도다)

국제캠 총학생회 김요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현재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강의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라며 미래과학관이 강의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이에 박 대외협력부총장은 "미래과학관은 기본적으로 교육공간이 아니고 연구공간이다"고 설명하며 "부족한 교육공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SPACE21 2단계 사업에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의 강의 공간 부족과 세 단과대학관 분리를 위한 계획은 없다.

서울캠 정경대학 학생회는 지난 3월 부족한 공간 해결을 위해 학생회장과 부총장 간 면담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본부와 학생 대표들은 부족한 잔여 공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정경대학 내 공간이 아니라 구 이과대학, 구 한의과대학 잉여 공간을 제공받는데 그쳤다. 해당 단과대학 내 공간이 모자라 다른 건물의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교도 이런 정경대학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SPACE21 2단계 사업에서도 정경대학 공간부족문제 해결은 뒷전이다. 직원 노동조합 김종현 위원장은 "우선순위를 글로벌타워 건축에 두기보다는 현재 가장 시급한 교육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의견을 밝혔다.

## 강의공간 부족 해소보다 사이버대가 먼저?

여기에 글로벌광장 및 글로벌타워가 노천극장 부지(현 농구코트, 테니스코트)에 건립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캠 총학생회 송태현(경영학 2014) 회장은 "학생들의 유일한 운동공간인 야외 농구코트와 테니스코트가 사라질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그는 "주차 공간, 경희사이버대, 정원 외 과정을 위한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은 "향후에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보강

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노후시설의 실질적인 수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원 노동조합 김종현 위원장은 "현재 SPACE21 2단계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 교육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정경대 리모델링도 치장만 해놓고 정작 필요한 교육공간을 확보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문과대 역시 치장만 해놓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캠 학생회관은 지난 2015년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PACE21 2단계 사업에 학생회관 보수와 관련된 계획은 없다. C등급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보수가 필요한 단계'다. 박영국 부총장은 "학생회관 공간부족 및 안전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다"고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다.

SPACE21 사업에 따라 2018년까지 문과대학, 정경대학, 음악대학을, 2019년까지 외국어대학, 중앙도서관, 자연사박물관,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전자정보대학, 천문대

등의 노후시설을 총 약 1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SPACE21 1단계 사업 때도 지적됐던 소통문제는 또 다시 불거졌다. 학교 측과 구성원이 알고 있는 정보간의 괴리감이 존재했다. 이날 대학평의원회에서 공개된 사업 계획 역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이었기 때문이다. 대학평의원의 목적 역시 '주최 측과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었다. 직원 노동조합 김영진 사무국장은 "구성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충분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대형 공사인 만큼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학평의원회에서 SPACE21 2단계 사업 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다"며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앞서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 발족 과정에서도 직원사회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 5월 24일 노동조합은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 통폐합과 복원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와 설명이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 SPACE21 1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통 부족하다는 의견

사실상 SPACE21은 구성원들의 의견과 필요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논의에서 보여주듯이 서울캠 학생회관, 문과대학, 정경대학, 국제캠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의 부족한 공간만큼 미비와 더불어 실질적인 수리보다는 치장만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직원 노동조합 김종현 위원장은 "실질적인 건물 이용자로서 불편한 점이 꽤나 있었다"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SPACE21 2단계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굳이 교내 한가운데로까지 경희사이버대학을 들여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했다. 직원 노동조합 김영진 사무국장은 "사이버대학이 교내 중앙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경희사이버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네오르네상스관 위에 공간을 다시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희사이버대학은 SPACE21 2단계 사업에서의 원래 계획대로 글로벌타워 공간을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캠 재정예산처 건설기획팀 정승환 과장은 "아직까지는 미래과학관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설계내용이 없다"며 "10월 즈음에야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 난항 겪는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임시사용기간 2020년까지 연장

김수혁 기자 sherh@khu.ac.kr

【서울】 지난 8월 23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행복기숙사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2년 뒤인 2020년 8월 22일까지로 연장됐다. 학교는 앞선 8월 8일 정식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는 쪽을 선택했다.

동대문구청이 처음 행복기숙사의 임시사용승인 결정을 내릴 당시 학교 측에 제시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행복기숙사 완공 이후 동대문구청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년간의 임시사용승인 조치를 받았다. 당시 구청은 행복기숙사 건물이 원활한 통행에 필요한 인접 공공도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건축법」 제 22조 3항은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자체 공공도로 미확보 이유로 정식 사용 승인 반려

처음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면서 구청은 학교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교통영향평가 기준 충족을 위한 공공도로 확보, 둘째는 기숙사 건립에 반발하는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이었다. 이에 학교는 '동대문구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생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주민과 대학 간의 상호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공공도로 확보 문제에 있어서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식승인의 발목을 잡았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2016년

내려진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동대문구청 사이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경희학원은 동대문구청이 공공도로로 사용 중인 경희대로 부지 일부가 법인의 사유지라며 소를 제기했다.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는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대문구청이 법인 측에 그간의 부당이득금과 앞으로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구청은 이 판결이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상정한 행복기숙사의 건축 인허가서 내용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 경희대로 이용 두고 학교 - 구청 간 입장차

동대문구청 건축과 임영진 주무관은 "경희대로는 이전까지 암묵적으로 공공도로로 취급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지위가 불분명해진 상황이다"라며 "경희대로를 다시 공공도로로 사용하고자 한

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 당국이 관할구역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계획에 따라 지정하는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권자와 권리의 대여, 혹은 이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학교 총무관리처 박명진 처장은 "법인과 학교로서는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구청은 지금까지 공공도로로 기능하면서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 관리해 온 도로의 사용료를 지불하러니 곤란한 것 같다"라며 "지금도 대학과 구청이 서로 반목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회장은 "행복기숙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학생의 실질적인 거주공간인 만큼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현재 행복기숙사 임시사용을 대변하기 위한 자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시위 주최 등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 "건물 자체에 이상 없다" 해결 방안 모색 중

한편 현재 한의대, 이과대, 간호대가 사용하고 있는 신축단과대학동 건물 역시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오는 12월 7일 만료 예정이다. 박 처장은 "가급적 12월 이전에 해결을 보려고 한다"며 "건물 자체의 안전성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이 걸려 있는 만큼 실제로 2년 뒤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지는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